

말씀이해를 위한 공통질문

- 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②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말씀적용을 위한 연령별질문

Tip: 하나님 자녀로서 각자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이라는 점도 잊지 않게 해 주세요.

영유치부 & 초등저학년

-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 가지** 이상 말해보고 감사드려요.

초등고학년 & 청소년 & 성인

-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

기 도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은 인도자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여전히 복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저희도 하나님께 신실하길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저희가 되게해주세요.”

이번주 미션: 협동하여 암송완성하기

이번주 가정예배 **본문말씀(민 23:19~23)**을 온 가족이 협동하여 암송해봐요.

예를 들어, 아빠가 19절을 암송하고 엄마가 20절을 암송하고.. 이런 식으로 온 가족이 한 절씩 맡아서 암송하고, 그것을 완송한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성실하게 미션을 수행한 가정을 선발하여 매 월 맛있는 **가족식사쿠폰**을 지급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예수님

5월 3주차

더빛 가정예배지

가정이 회복되는 시간,
예수님이 주인되는 시간,
가족이 가족되는 시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첫째. 매 주 가정예배를 드릴 요일과 시간, 장소를 정합니다.

- 가정예배가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요일과 시간, 장소는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꾸준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예배 10분 전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가정예배를 준비합니다.

- TV, 컴퓨터 등 모든 전자제품 사용은 잠시 멈추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 예배 때 마실 물이나 음료, 간단한 다과를 미리 준비하여 세팅합니다.
- 성경책(또는 큐티책), 가정예배지, 필기도구, 악기와 악보 등 예배 때 필요한 준비물을 챙깁니다.

셋째. 가족 모두가 모이면, 초에 불을 붙이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 초에 붙여진 불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마 음 열 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앞서, 매 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주: **“이번 한주를 보내면서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찬 양 하 기

피아노, 기타, 리코더 등 악기와 함께 하면 더 풍성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① 찬 393 오 신실하신 주 ② 경배와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대 표 기 도

대표기도는 매 주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번주 대표기도는 누구인가요? 아래 빈칸에 적어주세요.

이번 주 대표기도: _____ 다음 주 대표기도: _____

말 씬 읽 기

다함께 소리를 내어 3번 읽어요. 소리내서 읽은 후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

민수기 23장 19~23절

-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 20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 21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데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 22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 23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 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말 씬 이 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자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뛰어난 점술가로 명성을 떨쳤던 이방인 점술가 발람을 불렀습니다. 발람을 통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해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칼을 빼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으로부터 존귀와 권세를 주겠다는 유혹을 거둬 받았지만,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장소에서 이와같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자 발락은 두 번째 장소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장소에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한 말입니다. 발람의 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후회가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 주기로 작정하신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불가항력적이기에 누구도 방해하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비록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백성이지만,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미움과 저주가 아닌 사랑과 축복입니다.